一點、軍服 二十一點、軍旗 四點、軍畫 三十七點、其他 二十三點、合計 二〇七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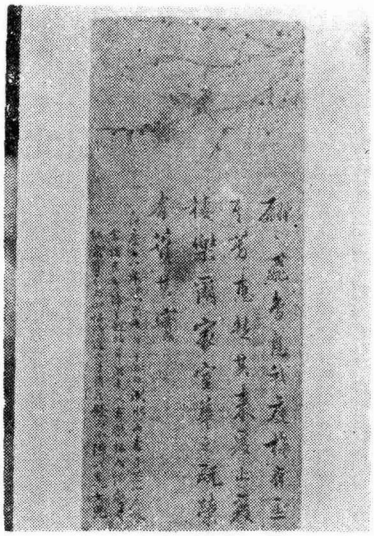
# 茶山의 梅鳥圖

孟 仁 在

年前에 東濱先生愛藏의 茶山山水圖一幅을 本誌에 簡單히 紹介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보다 年數가 얼마간 앞서는 茶山康津謫居時의 花鳥一幅을 拜觀하였기에 여기 抄錄하고자 한다。이 梅鳥圖는 高麗大學校博物館 陳列品인데 同陳列室에는 扇面銀泥、梅花에 寫經體의 細字畵贊을 가득히 쓴 또한幅의 茶山手蹟이 있다。

梅鳥圖、絹本淡彩、竪 四五㎝ 橫 一八·五㎝、畵面의 右上部로부터 梅花가지를 簇出시키고 그中 下枝에 紅嘴小鳥 한쌍을 排設한 小品인데 이 小畵面의 約 三倍에 該當하는 그以下의 空間에는 다음과 같은 題贊이 行草로 混書되어 있다。

翩翩飛鳥、息我庭梅、有烈其芳、惠然其來、
爰止爰棲、樂爾家室、華之旣榮、有實有實。



그리고 다음과 같은 跋記가 附書되어 있다。

嘉慶十八年癸酉 七月十四日洌水翁書于茶山東菴、余謫居康津之越數年、洪夫人寄敝裙六幅、歲久紅渝、剪之爲四帖以遺二子、用其餘爲小障、以遺女兒。

위의 畵贊과 跋記全文은 槿域書畵徵에도 引用되어 있는데 同書의 茶山手蹟에 關한 引用文은 全部 이것뿐이다。

茶山의 生年은 英祖 三八年(乾隆 二七、西紀 一七六二) 康津에의 流配는 純祖元年(西紀 一八〇一) 四十歲때의 일이니 跋記의 『嘉慶十八年』은 純祖十三年(西紀 一八一三)、定配후 十二年五十三歲時에 該當한다。十九年間의 긴謫居生活中 이미 太半을 넘긴 때의 일이니 洪夫人으로부터 헤여진 치마폭을 받은지도 歲久紅渝하였다고 數年前일을 述懷하고 있다 또 跋文에는 이를 베어 네개의 帖子를 만들어 두 아드님께 그나머지로 小障을 만들어 따님에게 물려주었다。했는데 따님에게 준 小障은 바로 이 梅鳥圖임이 틀림없겠으나 다른 二帖에 담겼을 여러 手蹟에 關하여는 알길이 없다。俟菴年譜에 의하면 이때에 茶山은 康津邑底로부터 八年만에 處士 尹博의 茶山山亭으로 옮겨 築臺穿池하고 列植花木、引水爲飛瀑하며 東西二菴을 짓고 藏書千餘卷에 著書로서 自誤하고 있었다한다。茶山으로 간지 八年만에 東菴에서 이 梅鳥를 그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때에 그의 怡然自誤 때로는 沈潛玩索하는 讀書子로서의 心境은 畵贊全文에도 切切히 흐른다 하겠다。梅花가지로부터 花瓣 봉오리에 이르기까지 細筆은 謹直하게 움직여 花瓣、봉오리에도 淡墨으로 一一히 輪廓을 그려 넣었고 꽃가지의 緻密着實한 描寫는 和齊의 筆法、畵風을 짐작케한다。淡紅、淡綠、褐、胡粉등 設彩는 一部 風化褪色하였으나 溫和、明媚한 殘跡을 남기고 있다。畵面은 小部分에 지나지 못하나。一定한 呼吸과 細心한 描寫가 周到하게 全面에 미쳐있어 讀書子의 余技로서는 하나의 異格이라 하겠으며 오히려 鄕土色짙은 畵院風의 佳作이라 하겠다。

# 異型土器의 一例

秦 弘 燮